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31-925-3070(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5년 12월 31일
19 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 위해 늘 힘써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에 인사드립니다.

가정이 다시 캄보디아에서 모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기로는 2월 초, 아내 김은경 선교사가 자녀들과 함께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이 지켜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이틀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간의 소식들을 몇 자의 글과 사진들로 담아 전합니다.



☞ 교회사역

[성탄예배 & 까끄다 전도사의 사임]

아시다시피 불교국가인 캄보디아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들의 위치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예배를 모두 성탄에 대한 설교(예수님의 탄생과 온누리에 미칠 기쁜 소식)로 정하고 한 달간 까끄다 전도사와 함께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직은 성탄선물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아이들이지만, 머지않아 선물보다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품기쯤 간절히 바랍니다. 40여명의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만찬과 프로그램(게임)을 함께 하며 12월의 마지막 예배겸 성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교회의 전도사로서 수고했던 까끄다 전도사가 12월 27일 주일사역을 끝으로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임선교사님이었던 백신종 목사님때부터 지금까지 약 9년여간 수고하며 저희 가정에게는 캄보디아에서 연을 맺은 가족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의 사임은 한편으로 매우 아쉽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의 관계에서 선교사로서 그에게 채워줘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와 향후 거처에 대한 까끄다 전도사의 계획을 다시한번 나누며 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음과 그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웃으며 속박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까끄다의 사임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과 논의하며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는 후임 사역자에 대한 논의였는데, 교회 성도들의 바람은 제가 맡아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학교사역은 생각하고 왔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후임자를 찾기 원했었는데, 성도들의 요청에 기도하며 겸허히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임하는 까끄다 전도사에 대한 교회 차원에서의 배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적은 사례를 받으며 묵묵히 섬겼던 그였기에 그리고 사임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건강이상과 쉬의 필요였기에 몇 달만이라도 편히 쉬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석달의 사례비를 준비해 퇴직금 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쉬는 동안 다른 생각하지 않고 편히 쉬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그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처소이전 문제 & 교회활동(주일 2부 & 야외모임)]

쉽게 장소를 찾지 못해 현재의 장소에서 1년더 머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장소가 나지 않음에 조금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이전을 포기하게 되면서 주일 2부모임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경(어린이) 때의 차이가 큰 편이라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연경 때를 소화할 수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놀다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밥만 먹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들의 중심에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기에 교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봅니다.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년(12월 둘째 주) 열리는 "Book Fair" 를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도서전시회와 그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참여도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바라는 참여한 아이들이 변화되는 교육과정을 접하며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깨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베트남이 혼맹소교의 5, 6학년 중 우수자 4명(남,녀 각2명)을 선발하여 인솔교사와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 지원이 아닌 내면적 지원을 함께하는 관계로 나아가 첫 단추를 끼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제가 있는 형제관계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현지학교 후원협력사역

[현지학교 교복지원(베트남 혼맹소등학교) / 언어학교 사역준비]

지난 학교지원사역 중, 방학이정과 겹치면서 새학기 조 미뤄던 교복후원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학교장의 요청으로 학사이정에 맞춰 추진된 전달식에서 마을과 연결된 북교단체가 후원에 참여하면서 생각보다 길어진 조 회시간에 장시간 땀별에 서있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는 국내 후원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달된 교복이 학생들의 몸가짐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르게 하는 그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총 225명]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언어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하기로는 지난 11월에 개강했어야 함에도 교육부 인가정차가 나지 않아 몇 달째 그 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인가를 받아 처음 계획했던 그리고, 마음에 품었던 사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한국장애인협회 - 후원물품 전달]

한국장애인협회를 통해 전달받기로한 물품(컨테이너)은 아직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찾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자 노력하는 협회에 그 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바라는 부족한 액수의 금액이 속히 채워져 나누는 기쁨과 전하는 행복이 충족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가정의 소식

서두에서 간략히 전하였지만, 아내 김운경 선교사와 세 자녀가 2월 초, 캄보디아로 복귀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민이는 지난 12월 9일, 1차 혈관확장시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몇 차례 혈관확장시술과 스텐트시술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캄보디아에서의 삶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동역자님들의 도고의 힘이 믿으며 다시금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현재로 마음이 쓰이는 것은 본국의 삶이 길어지면서, 그 삶에 익숙해진 지아와 지훈이가 특히나 학교를 다니며 이 곳(캄보디아)에서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을 사귀며 마음을 열었던 지아가 머리로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함을 알고 가야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전에는 항상 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떠들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더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이 되어 돌아오니 도리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가정에 허락하신 캄보디아의 삶이 단순히 저와 아내의 삶이 아닌 가족 모두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를 품은 마음이 가족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되게하소서.

☞ 기도제목

1. 교회사역:

[교회장소 이전] 마음 근처로 교회처소를 옮겨 성도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발적 교인으로서의 훈련과 동시에 지역교회로서의 분명한 자리를 잡기 소원합니다.

마음을 오가며, 지리적으로 적당한 곳을 보고는 있지만,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장소를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분명 예비하신 좋은 장소와 공간이 있을 줄 압니다.

허락을 구하고 찾게 될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사역자를 위해] 함께 할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준비중인 까프다 전도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새 사역자와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중인 까프다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나의 때를 구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2. 학교지원사역 및 개혁선집사역:

[학교지원사역] 주님 뜻에 항당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학교장과의 관계가 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현지인들과의 교제가 형성되는 언어학교의 준비에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뜻하신 바,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어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선집사역] 학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임선교사님들을 찾아뵙기 시작하면서 예전같지 않는 캄보디아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선집을 위한 NGO선집에서부터 갖춰야 할 조건들인 세상의 방법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기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커다란 산을 만난 듯한 지금의 심정을 온전히 주님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기에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학교부지를 놓고 기도중입니다. 시작부터 건물을 짓고 시작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시세를 감안한다면 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을 미리 찾아 준비해야 할 필요를 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2군데를 놓고 기도중이며,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사역이 가능한 지역을 소개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주실 때를 구함이 우선이기에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주실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3. 가정사역:

[언어진보] 인근에 거주하는 선임선교사님을 통해 이주일에 두번 크마에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용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 배운 것으로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해지지 않는 튜터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채우시는 은혜가 전대로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2월 초, 입국할 아내 김운경 선교사와 세 자녀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엄마' 라는 이름의 정신력으로 버티가는 아내 김운경 선교사와 세 자녀에게 다시금 시작될 캄보디아의 삶에서 살아갈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속히 하나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Marry Christmas & Happy New Year